

## News

### 비이자의 활로라던 銀 '신탁', 외형 커졌지만 수익은 되레 감소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사태와 초저금리 지속 등이 신탁 규모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규제 및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연계신탁(ELT) 판매 축소가 신탁수수료 수익의 저해 요인 국내 5대 은행들 올해 4월 말 신탁 자산은 355.7조원으로 18년 12월 말 대비 30.2% 증가했으나 동기간 신탁수수료 수익은 18.5% 감소

### '금융위 뒷북행정'...은행, 80여개 고난도상품 판매 중단

뉴스1

10일부터 시행된 고난도 금융상품 녹취·속려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규칙이 뒤늦게 발표되면서 은행권이 이날 80여개 펀드 판매를 중단 은행들이 고난도상품을 팔기 위해선 이사회 의결, 상품설명서 개정, 직원 교육 등이 필요한데, 일주일 만에 이를 모두 마무리하기엔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

### 지방금융그룹 인터넷은행 진출 시도...내년 출범 기대감 '솔솔'

아주경제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이어 3대 지방금융그룹(BNK·DGB·JB)도 기회만 닿는다면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전략을 기획한 상태 10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각 금융그룹의 인터넷은행 설립 의사를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중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

### 키코에 칼 겨눴던 윤석현의 퇴장...은행권 배상 동력도 '뚝'

뉴스1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Knock-In, Knock-Out) 피해 기업에 대한 은행권 배상을 주도해온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퇴임하면서 키코 논의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피해 기업 단체인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업들의 키코 손해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

### 한화생명, 현대해상 지분 5%이상 취득...이유는

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과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4월26일 기준 현대해상 보통주 지분 447만2866주(5.00%)를 취득 이들 기업은 지분 취득 사유에 대해 '단순 추가 취득'으로 경영권 행사 목적은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

### 뜨거운 증시... 다시 불붙은 대체거래소 설립

파이낸셜뉴스

수년 전부터 논의만 이어져 왔던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최근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르면 하반기 초 결론이 나올 전망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증권사가 외부 컨설팅사에 ATS설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 긍정적인 결과 나오면 ATS 법인 설립 후 금융당국에 인가 요청할 방침

### 증권사 랩어카운트 투자 주목

한국금융신문

지난 2월 말 기준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약 자산은 138조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조5304억원 증가한 수준이자 역대 가장 많은 규모 지속되는 증시 변동성에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투자자들이 증권사들의 랩어카운트 상품에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목소리 커졌다...은성수 "더 미루면 부끄러운 일"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 공청회에 참석한 은성수 위원장 역시 "더는 미루기는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보험업계에 힘을 실어줬다.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